# 성당과 바자회

Linux는 파괴적이다. 5년 전(1991년)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운영 체제가 인터넷의 보잘 것 없는 한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 수천명의 개발자들의 파트 타임 해킹에 의한 마술처럼 합쳐진다고 생각해 본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1993년 초에 리눅스가 나의 레이더 스크린 위에 헤엄칠 때쯤, 나는 이미 Unix와 오픈 소스 개발에 10년 동안 관여해 왔다. 저는 198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GNU를 만든 사람들 중의 한명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몇개의 프로그램(nethack, EmacsVC및 GUI모드, Excel등)을 개발하거나 공동 개발하여 상당한 양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 출시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리눅스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대부분 뒤집어 엎어 놓았다. 저는 몇년 동안 작은 도구, 빠른 프로토 타이핑과 진화 프로그래밍에 대한 유닉스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상으로 좀 더 중앙 집중화되고 연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운영 체제와 emacs프로그래밍 편집기와 같은 정말로 큰 도구)는 베타 버전을 출시하기 전에 개별 마법사나 작은 규모의 마법사들에 의해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LinusTorvalds의 개발 방식(초기에 그리고 종종,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은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여기서는 조용하고 경건하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며, Linux커뮤니티는 다른 의제 및 접근 방식으로 나타나는(Linux아카이브 사이트에 의해 적절하게 상징되는)안전하지 못한 시장을 닮았습니다.

이 바자회 형식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이 뚜렷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길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단지 개별적인 프로젝트에서 열심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왜 리눅스 세계가 혼란 속에서 분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신히 힘을 모아

1948년 중반 무렵에 나는 내가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우연히도 저는 제 이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형태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의식적으로 바자 스타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었어요. 그건 중요한 성공이었어요.   
이것이 그 프로젝트의 이야기입니다. 효과적인 오픈 소스 개발을 제안하기 위해 이것들이 제가 리눅스 세계에서 처음 배운 것들은 아니지만 리눅스 세계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지는 두겠습니다. 제 말이 맞다면 리눅스 커뮤니티를 이렇게 좋은 소프트웨어의 원천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